

박지원 “정부, AI 데이터 센터 등 투자·인사 호남 배려할 것”

‘약무호남 시무이재명’…국정운영에 ‘호남 목소리’ 키울 것
차기 당 대표 후보들 잇판 리브콜…“협력하고 정당한 요구해야”

“‘약무호남 시무이재명’ (호남이 없으면 이재명도 없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광주·전남지역을 구체적으로 챙기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여 동안 여야 정치인 중 가장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사신) 국회의원은 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과 호남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호남의 다양한 여론을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작·간접적으로 전달하며 국정 운영 과정에 ‘호남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에 지역구로 내려가 월요일에 서울로 돌아오는 ‘금귀월래’를 강화해 지역구인 전남 뿐 아니라 광주 곳곳을 누비고 있다.

대통령선거 이후 광주·전남을 찾아 지역 시민단체 등을 만나 호남의 소리를 경청하고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지역민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도맡고 있다. 그동안 5차례 광주를 찾아 지역 현안을 챙겼고, 이를 대통령실에 실시간 전달하는 일에도 앞장 섰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당 새 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측의 쏟아지는 리브콜 속에서 호남 정치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찬대·정청래 당 대표가 광주·전남을 찾아 행사를 하면 항상 박 의원을 초청하고, 박 의원은 이에 기꺼이 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 측을 돕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호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는 뜻에서다.

박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광주 5개 지자체, 22개 전남 시·군을 돌며 50회에 달하는 유세를 했고, 지역 민심을 듣고 현장을 누비는 경정투어만 무려 104회를 했다. 박 의원은 22일간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 총 1만502km를 이동하며 광주·전남 전 지역을 곳곳을 누볐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 대통령의 첫 타운홀 미팅을 광주에서 하며 12년간 지역 최대 현안이던 광주공항 이전 문제 해결 방안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았느냐”며 “반드시 AI 투자, 솔라시도 AI 데이터 센터, RE100 등 투자와 인사에서 배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외교·안보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국회는 개혁 입법에 나서고, 특검을 통해 내란을 종식하는 ‘3대 분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과 관련해서는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생존해 계시다면, 이 대통령에게 ‘특검을 통해 환부만 도려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대북관계 개선 등도 주문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호남인의 소원이었던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내란 세력 척결도 진행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준수하는 이재명 정부에 호남이 협력하고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깨끗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해남 파인비치골프코스(27홀)에서 오는 10월 중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가 추진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회를 유치하면 세계 170여개국에서 TV 중계만 5억7000만명이 경기를 시청하고, 6만5000여명의 관광객들이 해남에 오게 된다”면서 “벌써 해남 등지 호텔 예약이 이어지고 있고,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유발효과도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또 ‘내각에 호남 인사의 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보자, 1835일 임기 중에 이제 35일 남짓 지났고, 60개월 임기 중 한 달 지났다”면서 “반드시 예산과 인사 등 국정 전반에 호남 배려가



법사위,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종민 변호사가 법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내년 지방 선거 공천에 당원 참여 보장”

“지방선거기획단 출범…국회 차원 전남형 공공 의대 모델 완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국회의원이 9일 “내년 지방 선거 공천에서는 당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시켜 당원이 참여하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 대표 1기, 위기 시절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로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선을 개혁으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주일 간 ‘호남살이’가 전남에서 완성됐다. 김대중 대통령을 낳고 키운 전남에서 호

남살이와 어제 발의한 내란 특별법을 보고하게 돼 뜻깊다”고 운을 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남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여수 국가산단 고도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무안 국제공항의 서남권 관문화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과 법률 지원으로 전남형 공공 의대 모델을 완성하겠다”며 “또 기존 여수지역 석유화학 산업을 스마트·고도·친환경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전남

로드맵을 만들며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또 “에너지 3법”을 기반으로 해남 영농형 태양광 발전 단지, 목포 RE100 전용 국가그린산단, 진도 공공 주도 해상 풍력 직접화 단지 조성도 공약했다.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남은 민주당의 영원한 스승”이라며 “박찬대는 스승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좋은 학생이 되겠다.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전남의 미래를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힘 혁신위원장 윤희숙·전대 선관위원장 황우여

국민의힘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송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

을 분으로 우리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순천 간 국정위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필요”

승주 조성지 현장 점검…노관규 시장, 인센티브 제도 마련 제안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순천을 방문해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순천시가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나 순천시 주요 현안을 들여다봤다.

국정기획위는 순천시 승주를 그린바이오 클러

스터 조성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는 순천시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으로 ‘K-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 시장은 이날 국정기획위 박규섭 국장에게 기업 이전과 투자를 이끌어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과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또 미래 농생명·식품 거점 K-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카 K-디즈니 조성, 전남 우주방산 클러스터 및 국가산단 조성, 서남해안 생태·해양·치유 관광벨트 조성, 경전선·전라선 초광역 철도교통망 확충,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 통합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미래전략 연계 중점 사업도 제안했다.

박규섭 국장은 “현장에 와 보니 승주 그린바이오 클러스터가 꼭 필요성을 느꼈다”며 “오늘 들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꼭 지원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문에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물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